

보성군,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취약계층 ‘여름 이불 나눔’



보성군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이웃사랑 지역봉사 여름 이불 나눔'을 실시했다.

/보성군청 제공

12개 읍면 취약계층 여름 이불 나눔

지역 복지기관과 함께 온정 실천

보성군은 지난 14일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회(지회장 서근석)가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이웃사랑 지역봉사 여름 이불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소외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회는 보성군노인복지관, 보성군종합사회복지관, 보성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12개 읍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에 140채의 여름 이불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서근석 지회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우리 이웃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밀착형 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무더운 여름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군에서도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보성군지회'는 평소 산하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을 통해 지역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소외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 청년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젊은 세대의 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나눔 문화를 군 전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현대차그룹, PV5 WAV와 함께한 'The Moving Room'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이 기아의 PV5 WAV[1]과 함께한 23년 만의 가족 여행 이야기 영상 'The Moving Room'을 19일 공개했다. (링크: <https://youtu.be/dTSfcz4xfW8>)

공개된 영상은 호흡 보조 장치와 함께 생활해온 김은유 씨가 기아 대표 CSR 사업인 '초록여행'의 지

원을 받아 가족과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상을 통해 전동화 PBV[2]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용자의 일상을 차량 안으로 옮긴 생활공간이 될 수 있음을 실제 사례로 보여줬다.

영상 제목 'The Moving Room'

은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일상과 의료 환경이 PV5 WAV를 통해 '방처럼 익숙한 공간' 그대로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아의 첫 전용 PBV인 PV5는 의료·물류·레저 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차량 구조와 기능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PV5 WAV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한 교통약자 특화 모델로, 측면 승·하차 구조와 휠체어 고정 시

스템, 6:4 틸업 시트, V2L 기능 등을 적용해 모두를 위한 이동 경험을 제공한다. 영상 'The Moving Room'은 23년째 병원 생활을 이어온 김은유 씨가 기아 사회공헌 사업 '초록여행'의 지원으로 가족과 함께 23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 실화를 담았다.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모빌리티 기술이 일상을 확장하는 가치를 전한다. 현대차그룹은 "PBV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술이 이동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모빌리티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기술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의미를 뒀다.

기아의 사회공헌사업인 '초록여

행'은 특수 개조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며 교통약자의 여행 기회를 넓히고 있다.

현재 PV5 WAV와 PV5 패시저, 카니발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침이다.

/이가영 기자

생명의 땅 강진 하늘과 바다와 강, 들이 만나는 강진
강진에서 나오는 귀한 농수산물을 드셔 보세요.

강진군과 초록민음이 추천하는 강진 건강10대 농식품



강진군은 3가지를 약속합니다

01 신선

▶ 청정지역 강진에서 직접 생산

02 신속

▶ 농업인 직접 택배발송

03 신뢰

▶ 강진군

믿고 먹을 수 있는 맛!
착한 가격!



강진군 초록민음 직거래 지원센터
<http://www.gangjin.center>